

철강협회 STS클럽, 스테인리스 세미나 및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스테인리스업계, 산업패러다임 전환에 적합한 성장모델 구축 필요
- 자동차업계, 가전업계 전문 강연 ‘뜨거운 호응’ 속 성황리 마무리
- 스테인리스 제품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수상작 제품화 추진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회장 김광수, 포스코 전무)은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스테인리스 업계 및 수요가, 학계 및 연구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테인리스 산업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개최 전,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스테인리스 제품 아이디어·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총 235개 팀이 참여한 공모전에서 최종 2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경대학교 정보은 학생의 ‘캡슐(Capsule)’이 대상인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구본승씨의 ‘미러스탠드(Mirror Stand)’, 구형준·우민섭씨의 ‘슈클린(Shoe-clean)’ 등의 작품이 최우수상(철강협회장상/백조쌍크대표이사상)을 수상하였다. STS클럽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수요창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수상작의 시제품 제작을 추

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STS 산업 발전 세미나

2017. 11. 7(화)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2017 스테인리스 제품 아이디어 ·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김광수 스테인리스스틸클럽 회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니켈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우리 스테인리스 업계 기존의 통념을 넘어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경쟁업체와도 손을 잡고, 서로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유경제’의 경영전략을 펼쳐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광수 회장은 “우리 스테인리스 업계는 저가, 저품질 수입재에 대한 시장방어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only one 제품을 만드는 지속적인 품질경쟁력 향상과 전기/연료전지차 등 미래트렌드에서 새로운 수요창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전했다.

개회사에 이어, 세미나는 STS산업현황, 원재료시장, STS 배수지의 경제성분석, 자동차분야, 가전분야 STS 적용현황 등 총 다섯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찬욱 상무(보)는 『국내외 스테인리스 산업현황 및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수시장을 고도화하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의 보완이 필요하며 구매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수준의 가격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스테인리스 산업 발전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며, 한발 앞선 시장기회의 포착과 수익모델로 고유 사업영역을 창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선물의 김광래 연구원은 『2018년 니켈 전망: 니켈의 반란』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스테인리스 주요 원재료인 니켈 가격은 내년 가격 상승 압력이 우세할 전망으로 톤당 1만달러~1만4천달러 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세계철강협회의 내년 글로벌 철강수요증가 전망과 중국의 철강생산 감산에 따른 철강재가격 상승이 니켈 가격의 성장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광수출규제 완화와 필리핀 정부의 광산규제 완화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은 콘크리트 배수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배수지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수지 재질별 경제성비교 분석 연구』에서 발표하였다.

많은 참석자의 관심사였던 수요산업분야 강연에서는 포레시아 코리아 기술연구소의 김원태 이사가 『자동차배기시스템 시장 및 기술동향』에 대해, 삼성전자 조근우 수석연구원이 『가전분야 STS적용현황 및 동향』에 대해 각 수요분야에서의 STS현황과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은 스테인리스 제품의 신수요 창출 및 보급확산 등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 생산, 유통 및 가공회사 52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